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월간 내일

01
Vol. 548

행복 일터
●○○
Intro
출발선 앞에 선
당신에게

희망 일터
○●○
굿&굿 워라밸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성숙한 노사 문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힐링 일터
○○●
미디어 속 노동읽기
스타트업으로
지도 없는 항해를 시작해볼까요?

Contents

안녕하세요! 한 살 더 먹고 인사드리는 늘봄 과장입니다.
새해를 맞은 여러분들은 2021년 연간계획 잘 세우셨나요?
저 늘봄이도 달력을 넘기면서 올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봤어요.
다이어트, 영어회화 공부하기, 유튜브 채널 만들기 등.
막상 기록하다보니 하고싶은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이 마음 그대로 2021년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48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com

2021. 01
vol.548

행복 일터

Intro 04
출발선 앞에 선 당신에게

Topic 08
키워드로 보는
일자리 트렌드 2021

People 10
고용노동부 정책, 쉽게 알려주는
고대한 뉴스를 아시나요?
– 코미디언 김용명 씨

Info 14
유튜브로 보는
고용노동부 정책

System 16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일자리 정책
고용노동부에서 만듭니다!

Post 24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로
Cheer up, 취업 업!

희망 일터

인생 2막 28
칠전팔기 내 인생, 계속해보겠습니다!
– 유지철 화학안전관리센터 위촉교수

명장의 시간 32
변화를 즐기는 '자동화의 달인'
– ㈜영남테크놀로지 임상홍 대표

굿&굿 워라밸 36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성숙한 노사 문화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더불어 세상 40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이음', 그 연결고리를 꿈꾸며
– ㈜이음커뮤니티

기술이 힘! 44
'평생직장' 전기설비 기술로
든든한 2막 열어요!

인생설계카드 48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IT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정책이슈 52
워라밸 앞장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노동부가 안착시키겠습니다

고용노동 뉴스 56

힐링 일터

미디어 속 노동읽기 62
Follow Your Dream
스타트업으로 지도 없는 항해를 시작해볼까요?

시사백과 66
새해 첫날은 모두 떡국만 먹는 줄 아셨다고요?

직장탐구생활 68
신년 업무 목표,
잘 서포트해줄 플랫폼 어디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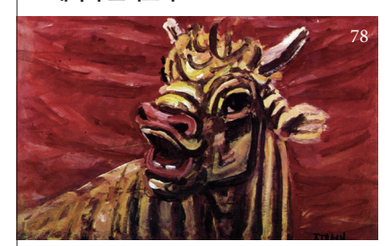
고민타파 70
새 마음 새 뜻 새내기 직장인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저녁이 있는 삶 74
미니멀리스트가 꿈이야?
날 따라 해봐요~

직장인 건강상식 76
겨울철, 꽁꽁 어는 손발 때문에 고생한다면 주목!

주말에 뭐 할래? 78
시작하는 당신을 위한
에너지 가득한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애독자 모의고사 82



Hello 2021

출발선 앞에 선 당신에게

2021년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부푼 가슴으로 넘겨보는
새 달력에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록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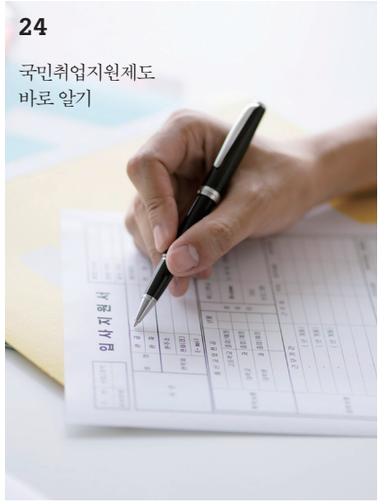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의 달력도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예술인, 아르바이트생, 산업현장 근로자,
사업주, 취업준비생, 특수고용 노동자 등 더 많은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죠. 해가 바뀌면서 적용되는 변화들은
더 많은 이들의 일과 삶을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변화에 낯설어 마땅히 받을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없도록
2021년 바뀌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정리해드릴게요!

08
일자리 트렌드
키워드 2021

10
고용노동부
유튜브 소개

16
2021년 바뀌는
고용노동부 정책 총정리

24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 알기



글 편집실 | 참조 도서 트렌드코리아2021,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1

키워드로 보는 일자리 트렌드 2021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양한 트렌드 연구소들의 키워드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일자리와 관련된 트렌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볼까요?

2021년은 소의 해?
2021년 신축년은 열두 간지 동물 중 소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소처럼 우직하게 일하라'라는 말이 있었죠. 그만큼 소는 노동력과 성실함의 상징처럼 여겨지곤 했는데요. 2021년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일터를 지킬 여러분들을 응원해요~

멀티페르소나 시대
N잡러는 명실상부한 대세

2020년 트렌드로 급부상했던 신조어 멀티페르소나는 한 사람이 가진 다양한 인격이 각기 다른 공간에서 발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였죠. 2021년에도 이러한 멀티페르소나의 트렌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자리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부업과 N잡에 관심을 갖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도 N잡 열풍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바이러스가 촉발한 변화의 물줄기
V-노믹스와 언택트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는 2021년 키워드 중 하나로 V-노믹스를 손꼽습니다. V-노믹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변화하는 새로운 경제학을 뜻하는 말인데요. 코로나19가 촉발한 언택트 트렌드는 2020년 한 해 광범위한 분야로 이어졌습니다. 2021년에도 이러한 언택트 트렌드는 대면과 비대면의 황금비율을 찾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은퇴를 꿈꾸며
파이어족의 증가

파이어족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활발해진 개념으로 빠른 은퇴를 꿈꾸며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하며 저축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플렉스를 외치며 적극적인 소비를 하던 젊은 세대들이 어려워진 경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겪으며 파이어족으로 돌아서는 추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기민하게
거침없이 피보팅

피보팅에서 피봇은 '축'을 의미합니다.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기업이 피보팅 전략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요. 사업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환경에 따라 사업모델을 유연하게 바꾸거나, 하드웨어와 고객층을 전환하는 등 살아남기 위한 변화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必 환경 시대
선한 오지랖이 대세

환경문제는 점점 더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가리켜 必 환경 시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죠. 이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움직임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식습관,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비자로 나선 이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착한 기업을 나서서 추천하면서 선한 오지랖에 나서기도 하죠.

글 황정은 | 사진 박찬혁

고용노동부 정책, 쉽게 알려주는 고대한 뉴스를 아시나요?

코미디언 김용명 씨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이런 때일수록 많은 사람이 정부의 고용과 노동 정책으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하지만 딱딱하게 나열된 정책 설명은 왠지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코미디언 김용명 씨의 〈고대한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정부의 고용 및 노동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그는 자신의 직업을 살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이 일에 애착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코미디언이자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그의 요즘은 어떤 나날일까요. 〈월간 내일〉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Q_ 고용노동부 유튜브 <고대한 뉴스>에서 활약하고 계세요. 독자분들에게 <고대한 뉴스>가 어떤 콘텐츠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고대한 뉴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실행하는 정책을 쉽게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생활에서 유용한 정책이지만 많은 분이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에 대해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책 설명이라고 하면 딱딱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 희극적 요소를 포함시켜 구독자분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실제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니 저도 몰랐던 유용한 정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내에게도 몇 가지를 소개하고, 친구들에게도 어떤 방송은 꼭 챙겨보라고 권하고 있어요.

Q_ 오늘 촬영한 영상은 어떤 주제와 정책에 대한 것인가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하는 촬영이에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매우 세분화된 기준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여서 지금 같은 시국에 정말 의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잖아요. 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Q_ <고대한 뉴스>를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이 있을까요?

아내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내용을 같이 봤어요. 저희도 아이가 있는 가정인데 이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대화를 나누면서 볼 수 있었죠.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 또한 유익했고요. 저 역시 코미디언이자 연극배우로 무대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간 것 같아요.

Q_ 대학로에서는 연극배우로, 방송가에서는 코미디언으로, 또 학교에서는 교수로 다양한 노동자의 관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직접 소개하신 제도 중 '이 제도는 노동자 입장에서 참 좋았다' 하는 제도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방금 언급한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이죠. 제가 무명생활이 길었어요. 대학로에서 약 16~17년 동안 무명이었는데요. 그 기간에는 수입도 부족한 데다가 직업 특성상 4대 보험 가입도 어려워 생계 자체가 막막한 상황에 몇 번 직면했어요. 헌데 이 제도를 알게 된 후 예술인도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돼 보장을 받는구나 싶어 반갑더라고요.

Q_ 최근 방송하신 '슬기로운 한국판 뉴딜 생활'은 라이브로 진행이 되었어요. '한국판 뉴딜'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재미있었어요. 최근 비대면 방송이 많은데, 이 방송도 비대면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었죠. 조금이나마 우리가 연결돼 있구나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 또한 정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쉽고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진심이 조금은 통한 것 같아 감사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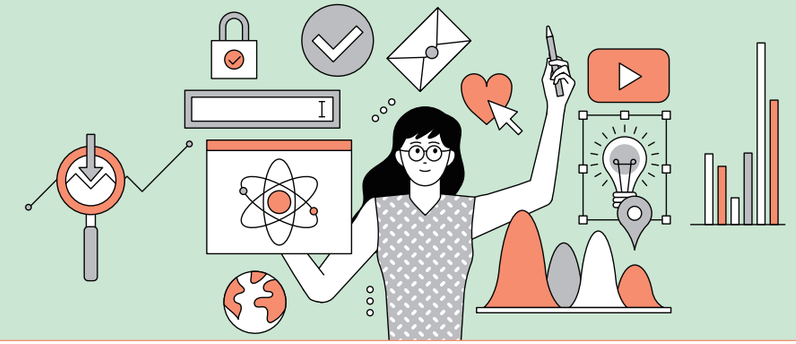
Q_ 2020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이 일터에서 나오거나 사업장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힘들거나 괴로울 때 웃음을 찾을 수 있는 비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끊은 지 오래예요. 술 담배를 모두 안 한다고 하면 '어디서 삶의 기쁨을 얻느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 유일한 삶의 낙은 딸이에요. 집에 가면 26개월 된 저희 딸이 문 앞에 나와 저를 반겨주는데 그 순간에는 모든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이 싹 날아가요. 가족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매일 느끼며 살고 있죠. 제 딸이 저에게 주는 기쁨만큼은 못하겠지만 저 역시 많은 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웃음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Q_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이지만 다시 출발선 앞에 선 독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려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드시지요.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있듯 우리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고대한 뉴스〉와 방송들을 통해 많은 구독자와 더 친근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꼭 잘 버티셔서 건강한 일상으로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보는 고용노동부 정책



고용노동부 유튜브에는 다양한 정책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기대하고 고대한 정책뉴스
고대한 뉴스

코미디언 김용명 씨가 진행하는 고대한 뉴스는 요즘 핫한 고용노동부 정책을 소개합니다. 용식이, 용녀 등 다양한 캐릭터로 분한 MC용명의 소개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지원, 실업급여제도 개편 등의 고용노동부 정책 소식을 재미있게 만나볼 수 있어요.

당신의 고민을 입력하세요
랜선노동법

현직 노무사가 알려주는 노동법 이야기 랜선노동법은 구독자분들이 직접 보내온 사연을 소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입니다. 이주영 노무사와 진선미 노무사의 친밀하고도 살뜰한 상담을 통해 근로계약서, 직장 내 성희롱, 임금 체불, 연차 사용 등의 고민을 해소해보세요!

레알법
레알노동법

레고를 좋아하는 키덜트족의 취향을 저격하는 영상 콘텐츠도 있습니다. 현실 속에 일어날 법한 상황을 레고를 통해 재연하고 노동법을 설명해주는 콘텐츠인데요. 산재보험, 직장인 유튜버 겸업 금지, 사직서와 퇴직금 문제, 아르바이트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등.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답니다.

코로나19
정책알람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시시각각 변하는 지원 정책을 알려주는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해 가족돌봄휴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유연근무제 노무비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을 전해줘요!

오늘 정책
정책총알배송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고용노동부 정책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바뀐 정책 동향을 신속하게 소개하고, 고용률과 실업률 등 각종 지표에 대한 팩트체크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어 신뢰하며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랍니다.

청년들의 정.책.체.험.기
정체를 알리오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정책을 체험해보는 영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체를 알리오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한국폴리텍대학교 신중년 특화과정을 체험하고 내일배움카드 과정을 직접 참여해보는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지원을 현장감 있게 전해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일자리 정책
고용노동부에서 만듭니다!

2021년에도 고용노동부는 여성, 지역인재, 청년, 신중년, 장애인, 특수고용 노동자 중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일자리 지원에 나섭니다. 대상자별로 2021년 어떤 일자리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 정책을 상세하게 살펴봅니다.

예술인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0.12.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지원합니다. '21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1년부터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월 보수): '20년 215만 원 미만 → '21년 220만 원 미만

장애인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 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 · 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금은 월 5만 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버스, 택시(장애인 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최저임금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데,* '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 원이었으나, '21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94천 원으로 인상 · 적용합니다.

* 정부(공무원부문):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 정부(비공무원부문) 및 민간기업: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 위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내 강사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부터 적용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3항('20.6.9 공포, '20.12.10 시행)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제3항 ('20.12.10 시행)

산업현장 근로자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화학물질(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작성 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 ·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간 화학물질을 양도 · 제공 받는 자에게만 제공하던 MSDS를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으로 MSDS 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심사 기간은 1개월 이내)을 받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기재해야 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며,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MSDS: 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제품명,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취급 주의사항, 유해성 · 위험성 등)를 기재한 자료
* 심사 신청 시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용(R&D)용 화학물질은 절차 간소화(심사 기간은 2주 이내)

대표이사의 안전 ·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 승인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대상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 위 이내의 건설회사입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 ·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 인원 및 역할, 안전 ·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안전 · 보건에 관한 활동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계획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함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화재 · 폭발 · 누출 등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 · 취급 · 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 ·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된 규정량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6일 부터 적용 · 시행되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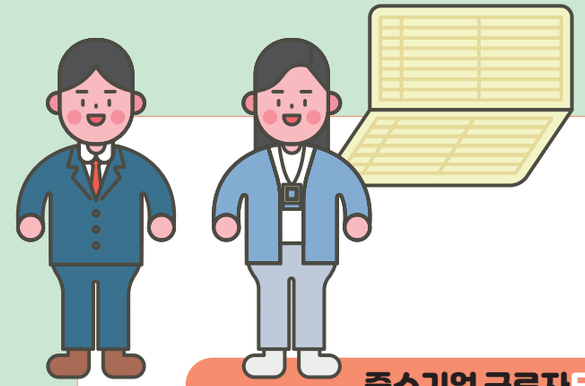
'21년부터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급여의 신청기간이 장해판정일부터 3년까지 확대됩니다. 직업훈련은 일하다 다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훈련신청 시점에 따라 훈련수당을 차등 지급하였으나, 이제는 훈련신청 기간이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변경되어 훈련수당이 차등없이 지급됩니다.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훈련을 신청해도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해 드립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시행일 이후 산재 장해를 판정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 (훈련기간) 산재 직업훈련 지원(수당 · 비용) 기간은 총 12개월, 훈련 횟수 2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21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현재 음식배달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데, '21.7월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 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 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 휴일로 부여(휴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 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사업주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 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 원입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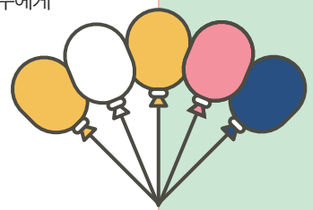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일하는 부모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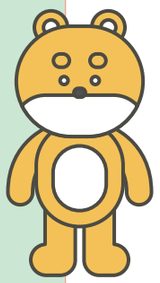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월 30만 원)에 더해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2,3호 인센티브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호 인센티브 신설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운영비·설치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중 해당 직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 조손가정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지원요건 판단 시 피보험자가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도록 하여 피보험자가 친권자·후견인·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종목 내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합니다.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며, 1자녀당 연 500만 원(총한도 1,000만 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前) 저소득 노동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後) 저소득 노동자,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저임금근로자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

최저임금액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수습사용 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272,810원(8,720원×208.57시간×15%), 복리후생비 54,562원(8,720원×208.57시간×3%)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로 Cheer up, 취업 업!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약 59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대상과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볼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제도인가요?

2021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정망의 강화를 위해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일명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이 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정망으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해요!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상담은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정리

Ⅰ유형

대상: 15~69세 구직자, 소득 및 재산 요건 부합(기준 주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추가 선발: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의 18~34세 청년

Ⅱ유형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대상: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50% 이하	3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특례: 120%↓)	3억 원 이하 (청년특례 별도규정)	X
Ⅱ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별도 정함)	X	X

국민취업지원제도 Q&A

Q.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종전에는 고용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② '22년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실업급여·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함께 연간 2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됩니다.

③ 고용서비스 참여자들의 취업률이 16.6%p 올라가고, 빈곤갭은 2.4%p 줄어들어 고용개선 및 빈곤완화 효과가 나타납니다.('18년, 노동연구원)

Q.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2021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기준 중위소득의 120% 청년특례 선발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취업 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❶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❷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❸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❹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❺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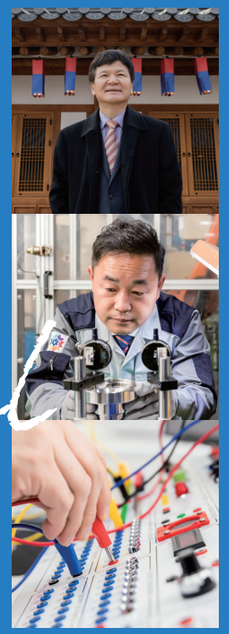
❻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참여(1회), 취업특강참여(1회)

❼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 건가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에 한하여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두 제도는 그간 참여자의 취업 성과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법적 기반이 없는 예산사업으로서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 대한 종합취업지원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하고,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구직활동의무 부과, 불이행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Hopeful

28
칠전팔기 내 인생,
계속해보겠습니다!
유지철 화학안전관리센터
위촉교수

32
변화를 즐기는
'자동화의 달인'
㈜영남테크놀로지 임상홍 대표

36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성숙한 노사 문화
한국국제협력단(KOICA)

40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이음',
그 연결고리를 꿈꾸며
㈜이음커뮤니티

44
'평생직장' 전기설비 기술로
든든한 2막 열어요!

48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IT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52
워라밸 앞장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노동부가 안착시키겠습니다

56
고용노동 뉴스

글 최소희 | 사진 김재이

칠전팔기 내 인생, 계속해보겠습니다!

유지철 화학안전관리센터 위촉교수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비난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렇지 않은 듯, 무릎을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설 때에 비로소 인생의 2막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다

유지철 씨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전문적이고 탄탄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1985년부터 2008년까지 삼성전기의 화학분석 및 공정기술 지원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상품과 공정에서 쓰이는 재료들의 성분을 검사해 공정의 효율과 작업자 및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죠. 그는 해당 분야에서 20년이 넘는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한 때, 임원 후보 0순위까지 오를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했던 그에게 삶은 평탄한 길만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획 없이 맞게 된 자유는 당혹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매일을 바쁘게 살아오던 몸의 습관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죠. 퇴직 후 한동안, 망망대해 같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방황했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55가 정년이었어요. 3년 일찍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말이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경제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당장 내일부터 어떤 생활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지난 시간에 대한 기억을 놓지 못하고 얼마간은 제대로 된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허송세월할

수 없다 판단한 그는, 집을 나왔습니다. 도서관과 산을 번갈아 다니며 독서와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이 시기 그가 쌓았던 지식과 체력이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인생 2막의 든든한 자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 년 정도 지내고 나니,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운명 같은 재취업, 인생 2막의 시작

그렇다고 그가 단박에 꼭 맞는 일자리를 찾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취업 성공을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 것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원 방법부터 시작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정보 교류 경로까지 그가 구직시장에 있을 때와는 너무도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안으로 크고 작은 일자리 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일자리를 물색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의 경력과는 전혀 무관한 일뿐이었습니다. 기회가 닿아 헤드헌터 업무를 맡기도 했었지만, 이마저도 '나이'라는 벽을 넘기 어려웠습니다.

"기업의 채용 담당자가 대부분 나이 어린 사람들이잖아요. 업무와 관련해서 요구사항이나,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저를 너무 어려워 하니까, 해야 할 말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민폐를 끼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다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죠."
이후로 몇 번의 고배를 마신 뒤, 취업에의 의지를 포기하려던 찰나, 그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바로 경기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였습니다. 직접 찾아간 적은 없었지만, 구직 등록을 통해 그의 정보를 접한 센터가 먼저 연락을 한 것이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있던 그에게 중장년층 재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한가닥 희망과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우연히도 교육장소가 집이랑 가깝더라고요. 재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교육을 들으러갔어요. 취업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 끝나고 나니, 각자 배정된 컨설턴트와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거기에서 저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준 은인인 지현민 컨설턴트와 만나게 됐어요."
다음 날 컨설턴트의 연락을 받고 센터를 찾은 그의 앞엔 너댓개 기업의 정보가 적힌 서류가 놓여있었습니다. 하나 같이 그의 이력과 적성에 꼭 맞는 자리였는데, 그 중 한 곳이었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공채가 마침 그 날까지였습니다. 부랴부랴 지현민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만들어 지원했고 합격의 기쁨까지 맛보게 되었죠. 그는 이제와 생각해보면 경기노사발전재단의 연락을 받은 것부터 지현민 컨설턴트를 알게 된 것까지 모두 운명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서류에 합격하고 다음 단계로 모의 강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서류 합격한 것만으로도 잘된 일이니, 지현민 컨설턴트에게 인사를 하려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모의평가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 앞에서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정말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말투나 표현, 옷차림까지 정성스러운 피드백 덕분에 최종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삶

그가 새롭게 맡게 된 안전교육 업무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에서 화상, 질식, 폭발,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화학물질의 성질과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을 알려, 작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위험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죠. 이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초까지만 해도 꾸준히 강의를 진행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요즘엔 강의 자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이 밝은 이유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강의 자리가 줄어 아쉽기는 해요. '환경영향평가'나 '위험물취급관리' 등 다른 분야의 교육에도 도전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프리랜서로 일정관리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정년이 없는 만큼 자신의 능력껏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최근에는 안전교육과는 거리가 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의 변신도 생각하고 있다는 그. 내일배움카드를 알게 되면서 더욱 넓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데요.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용기야말로 그를 성공으로 이끈 핵심 요소가 아닐까요.
"요즘엔 바리스타와 베이킹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원래부터 커피와 빵을 좋아했기에 더욱 호기심이 생기는 거 같아요.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이용해 학원을 다니며 기술을 익혀볼 생각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제 가게를 차리는 것이 최종목표랍니다."
희망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의 앞에 분명 향기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꼭 전하고 싶다던 메시지를 끝으로 인터뷰를 맺었습니다. 경험자의 진심어린 조언을 마음에 새겨둔다면, 밝은 내일을 꾸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은퇴 후 재취업은 노후 대비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관문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립니다. 재취업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지난 날에 대한 미련'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스무 살의 초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했던 그대로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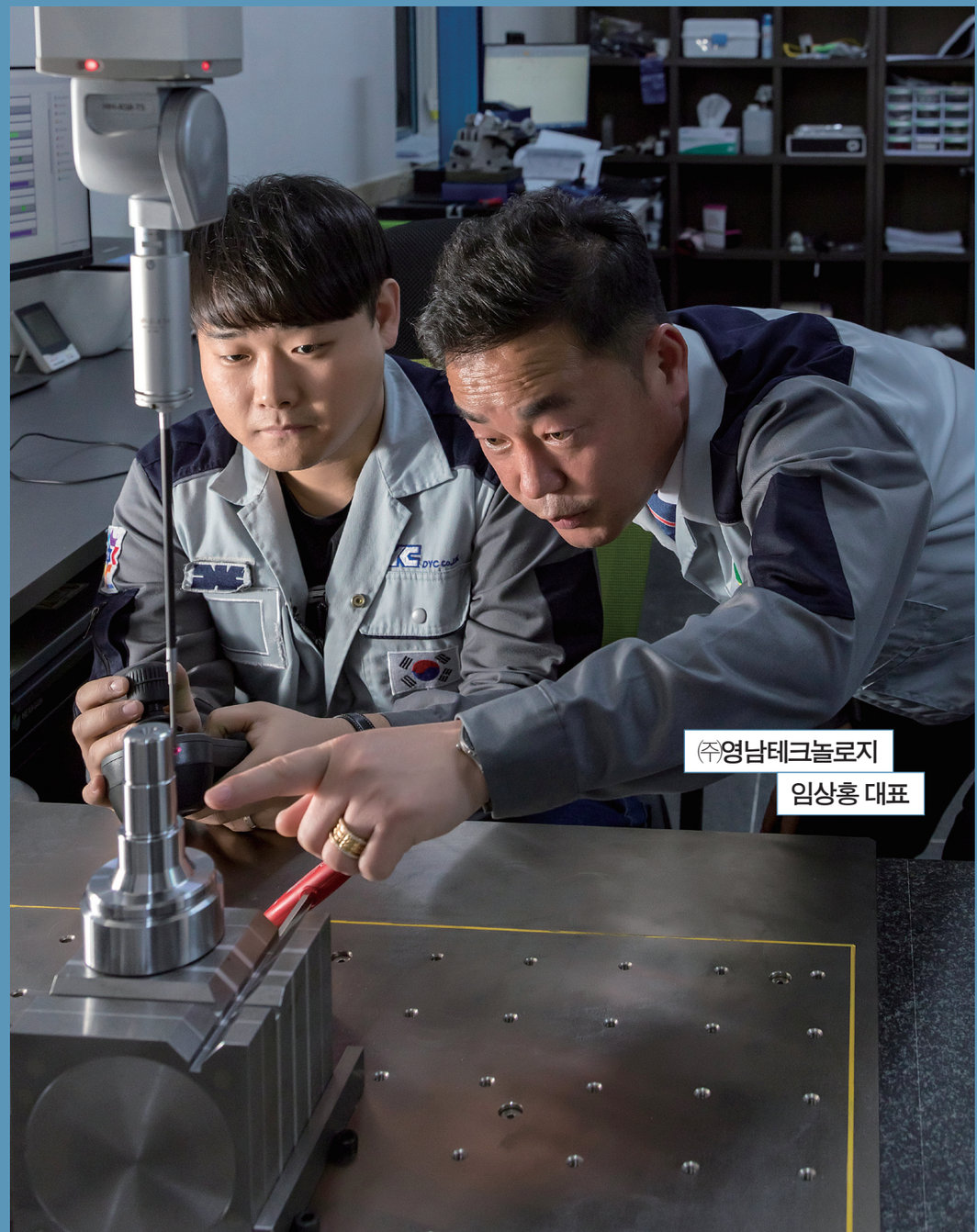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Send a letter

"포기를 모르는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경기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지현민 컨설턴트**

"10년 만에 처음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2년 전 저와 첫 만남에서
선생님이 하셨던 말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선생님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취업이 되어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이후로 이직 같은 변동 사항이 생길 때마다
어김없이 연락을 주십니다. 이따금씩 오는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나면,
컨설턴트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19로 강의 자리가 많이 줄어들어
선생님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이 또한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강의 시작했어요."
하는 선생님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변화를 즐기는 '자동화의 달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인 '피보팅(Pivoting · 상황에 맞춘 유연한 사업 전환)'을 오래 전부터 실천하고 있는 기능한국인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자동화의 달인'으로 떠오른 ㈜영남테크놀로지 임상홍 대표가 그 주인공입니다.

기술인의 길에 들어서다

경북 의성의 한 농촌에서 나고 자란 임상홍 대표는 일찍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했습니다. 맹목적으로 학업을 이어 가기보다는 얼른 기술을 익혀 사회에 진출하고 싶었던 겁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길 원하는 부모님과 한동안 기 싸움을 벌인 그는, 결국 고집대로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기술인으로서의 첫발을 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1학년 때부터 과별로 4명씩 기능훈련생을 선발했어요. 학교를 대표해 여러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며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해서 여기에 들어갔고, 수업 후 9시 이후까지 과제를 수행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기계 제도 기술을 배웠습니다. 덕분에 동기들보다 뛰어난 제도 실력을 갖출 수 있었죠."

3학년이 된 임상홍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 어느 곳에 취업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었지만,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기 힘들었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곧바로 실전에 투입될 수 있었죠. 오래전부터 기술인으로서 일가를 이루겠다고 다짐해 온 그는 1989년, 당시 공장 자동화 설비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던 한 중소기업의 설계부에 입사했습니다.

"예상대로 출근하자마자 설계도면 업무를 맡았습니다. 위계질서가 뚜렷했던 대기업에서는 꿈꿀 수 없는 일이었죠. 고등학교에서 기능훈련생으로서 한층 깊은 기술 훈련을 받아서인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대학교에서 기계 설계를 전공하고 입사한 3년 차 선배에게 설계도면 작업을 가르쳐 줄 정도였죠. 덕분에 2년간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했고, 이후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해서 여기에 들어갔고, 수업 후 9시 이후까지 과제를 수행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기계 설계 기술을 배웠습니다. 덕분에 동기들보다 뛰어난 설계 실력을 갖출 수 있었죠.

과감한 도전으로 인정받은 기술력

30개월간의 군 복무 후 사회로 돌아와 보니, 다니던 회사는 부도가 난 상태였습니다. 대신 제대 열흘 만에 설계실 부서장이 새로 차린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아무래도 회사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 설계도면 업무 외에도 자동화 설비 제작 전반에 대한 일을 두루 맡았습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임상홍 대표의 기술력과 사업 수완도 늘어갔죠. 그러던 중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받게 되면서 집안일을 돕기 위해 회사를 나왔고, 아버지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1998년, 영남테크놀로지의 전신인 설계 사무실 영남엔지니어링을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계 설계를 주로 맡았는데요. 한 업체에서 가공까지 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해 주시면서 부품 제작에도 직접 나섰습니다. 내친김에 염색, 섬유, 자동차 부품 제작, 자동화 설비 제작 등으로 사업을 점차 확장했죠. 탄탄한 설계 기술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설계한 제품을 직접 가공하다 보니 완성도도 매우 높았고, 회사 규모도 점점 커졌습니다. 2002년에는 ㈜영남하이닉스를 설립해서 반도체 관련 부품 자동화 보조 설비도 설계, 제작하기 시작했죠."

이런 와중에 회사의 자동화 설비 제작 능력을 널리 인정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의 한 섬유공장에서 염색 약품을 자동 배합하는 설비를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기존에는 이탈리아에서 설비를 수입했는데, 워낙 비싸고 A/S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 국산화를 요청한 것입니다. 임상홍 대표는 지금껏 쌓아 온 자동화 설비 제작 노하우를 총동원해 '자동조제이송장치'를 개발, 납품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으며 회사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공인받았습니다.

변화는 성장의 원동력이다

그 무렵 임상홍 대표는 한 회사로부터 글로벌 완성차 회사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동력전달장치 부품을 만들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금껏 뜨거운 도전정신으로 사업을 키워 왔기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더불어 수주받는 자동차 부품이 점점 많아지자, 회사의 방향을 서서히 자동차 부품 제조 쪽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현재 영남테크놀로지와 영남하이닉스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동화 장비 제작 수주업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서 부품의 최종 납품처인 미국 유명 자동차 회사가 파산보호 신청을 했고, 덩달아 저희 사정도 어려워졌죠. 하지만 저희의 기술력을 눈여겨본 독일의 유명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납품 의뢰가 들어왔고, 덕분에 지금껏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쌓아 온 기술력이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해 준 셈입니다."

한편 임상홍 대표는 업종을 변경하는 가운데에도 자동화 설비 제작 기술력을 버리지 않고 생산 현장에 고스란히 적용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련 특허만 5개이며, 이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특허를 꾸준히 출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영남테크놀로지와 영남하이닉스의 자동화 수준은 98%에 달하며, 코로나19 이후 심해진 인력 변동 와중에도 문제없이 생산 공정을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변화를 두려워하는데요. 저는 '모든 변화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독려하니까요.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기능한국인이라는 명성에 어울리는 활약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대부분 사람이 변화를 두려워하는데요. 저는 '모든 변화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독려하니까요.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기능한국인이라는 명성에 어울리는 활약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성숙한 노사 문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제 ·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 기관입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협력'이라는 미션으로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하고 있는 KOICA는 2020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모두의 희망 일터로 발전해가는 KOICA의 노사문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세상을 희망하다

6 · 25전쟁 직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불과 76달러. 당시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로 꼽혔습니다. 그로부터 약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원조를 받아야 했던 최빈국에서 벗어나 원조를 주는 공여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국제개발협력의 최일선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는 기관입니다. 1991년에 설립된 외교부 산하 대외무상협력기관으로, 세계 각국에 44개 사무소를 두고 국내외 6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미션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협력'입니다. 이 한 줄의 문구에 담긴 비차별원칙은 한국국제협력단이 노사문화를 혁신하면서 되새긴 기준이었습니다. 한때는 한국국제협력단의 노사관계도 불신과 갈등 속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7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경영평가결과에서 노사관계 직원 만족도는 불과 39점.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전사 혁신 요구가 안팎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노사문화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내부 직원의 만족도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평가한 수치도 크게 좋아졌어요."

한국국제협력단 인사제도개선팀 신승희 과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3년이 흐른 지금, 한국국제협력단의 노사관계 직원 만족도는 70점 대로 훌쩍 올랐습니다. 2020년 노사문화우수기업 국무총리상을 받기까지, 한국국제협력단은 여러 차례에 걸쳐 노사가 함께 협의하며 노사상생협력 추진 체계를 갖춘 덕분입니다.

관행은 버리고 제도는 개선하고

2017년 정부 주도로 시작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한국국제협력단의 노사문화 개선의 계기였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전환 대상 근로자들이 주요 현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회사와 자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사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무직 인사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과 동일 보수 규정을 적용하고, 승진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사가 나서 직종별, 직급별 간담회를 열고 구성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진행하는 간담회는 일방적인 설명회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차별원칙 아래 설정한 인사제도를 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구성원들을 설득했어요. 인사제도의 적합성 역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6개월 동안 컨설팅을 받았고요. 최종적으로 이동 배치와 교육이 완료된 것이 2020년 6월이니, 총 2년에 걸쳐 단계별로 변화해온 셈입니다."

워라밸, 제도를 넘어 문화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은 '문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시작한 'PC-OFF제'는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단축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실제로 PC-OFF제를 계기로 한국국제협력단의 초과근무시간은 2018년 9.2시간에서 2019년 5.5시간으로 월 평균 약 5시간이 줄었습니다. 퇴근시간에 맞춰 PC가 종료되는 PC-OFF제는 자연스럽게 정시 퇴근하는 문화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더불어 유연근무제도 역시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시차 출근은 기본. 시간선택제를 통해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구조이지만, 직원의 필요에 따라 7시 출근, 4시 퇴근도 가능합니다.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은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시간을 신청하면 하루 2시간 임금 감소 없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여성근로자 비율은 약 50%에 달합니다. 임신 후 출산휴가를 가면 자동으로 육아휴직 신청까지 완료됩니다. 출산 이전에도 임신 중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 직원들은 육아휴직을 앞당겨 사용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 연차휴가저축제도를 통해 연차를 쌓아 두거나 당겨 쓰기도 합니다. 재직 기간이 짧아 연차가 충분하지 않은 직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죠.

한국국제협력단이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빠르게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화를 정착

2021년은 한국국제협력단이 창설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1년에 열리는 노사 공동회의체의 추진 목표는 바로 '일하기 좋은 KOICA, 행복한 KOICA'입니다. 직원들의 행복이 개발도상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국제협력단의 변화 역시 계속됩니다.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통과 협력의 노사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물론 이사회 근로자참관제, 혁신위원회, 인원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각종 협의에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로 참여하고 있고, 상설기구로 인사제도개선노사공동위원회, 조직문화노사공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모자회사노사협의회도 운영 중입니다. 덕분에 수시로 노사가 만나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죠.

돌아오는 2021년은 한국국제협력단이 창설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1년에 열리는 노사 공동회의체의 추진 목표는 바로 '일하기 좋은 KOICA, 행복한 KOICA'입니다. 직원들의 행복이 개발도상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국제협력단의 변화 역시 계속됩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우수 노사문화 비결을 정리해봤어요!

직급

공식 직급 신설로 승진 차별 철폐

직급명

일반직과 동일직급명 부여로 직군간 갈등 해소

승진제도 마련

27명 승진 실시(2019~2020년)

이동배치

- 일반직과 동일한 순환 배치 원칙 적용
- 전문직위제도 활성화(총 13명 중 공무직 3명 지정)
- 해외사무소 파견 최초 실시(5명 최초 파견)

글 황정은 | 사진 김지원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이음' 그 연결고리를 꿈꾸며

㈜이음커뮤니티

최근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와 복지개선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종종 다뤄집니다. 어디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이 고쳐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덕분에 일련의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듯 하지만, 여전히 플랫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퀵 화물 물류 배송 종사자들은 어디서도 주목받지 못합니다. 퀵서비스 업의 기초 실태는 조사마저 부실한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퀵 화물 물류 배송 기사들의 현실에 주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음커뮤니티의 안대성 대표입니다. 10년의 영업활동, 7년의 퀵 화물 물류 배송 시장에 종사한 경험을 살려 물류 배송 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다는 안대성 대표로부터, 그의 소망과 바람을 들었습니다.

기사들에게 수수료 환원

13%

기업에 수수료 환원

10%

지금까지 연결된 퀵 물류 배송 기사의 수

700명(1년차 50명에서 650명 증가)

기업과 기사, 모두 '윈윈(win-win)' 하는 시스템을 꿈꾸며

2018년 설립된 ㈜이음커뮤니티는 퀵 물류 배송 시장에서 기업과 기사,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꿈꾸며 만들어졌습니다. 퀵 물류 배송 회사에서 7년 간 몸을 담은 안대성 대표가 이 시장의 불합리함을 느낀 후, 조금이나마 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세운 것이죠.

"물류 배송 시장에서 일하다 보면 기사들과 콜센터의 관계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체감할 수 있어요. 콜센터와 플랫폼 회사가 수수료 및 이용료 명목으로 물류 기사들로부터 비용을 떼어가다 보니 관계가 좋을 리 없죠. 저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가 노동에 대한 가치를 평가 절하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고 생각해요. 노동도 투자입니다. 플랫폼 산업이 아무리 대세라고 해도 결국 누군가의 노동을 필요로 하잖아요. 이 회사를 만들고자 했을 때 저는 그동안 함께 일했던 기사님들을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현실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죠."

안대성 대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퀵 물류 배송 종사자는 약 20만 명입니다. 헌데 이 수치는 매우 축소됐으며, 실질적으로는 80만 명이라는 주장도 거론됩니다. 이처럼 퀵 물류 배송 종사자 수에 대한 통계가 일관되지 않은 것은 관련 통계가 정확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의미죠.

"아직 퀵 물류 배송 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은 것은 물론, 기사들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 시장의 중심은 대형 업체들입니다. 기사는 그 안에 없죠. 대형업체들의 일방통행식으로 돌아가는 시장은 아주 오랫동안 고착돼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사에 대한 처우와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사람 중심, 가치 중심'의 사회적 기업을 품다

기사의 안전대책 강구를 외치는 안대성 대표. 그가 설립한 예비 사회적 기업 ㈜이음커뮤니티의 가치관은 바로 이러한 안 대표의 마인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회사만 수익을 얻는 기존의 운송 시스템에서 벗어나, 기사의 수익도 높이는 구조로 시스템을 바꿔 노동의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으려 한 것이죠. 그렇게 탄생한 서비스가 바로 '직퀵'입니다.

"기본적인 퀵 물류 운송 시스템에서는 플랫폼 회사가 23%의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헌데 저희 직퀵은 기존의 23% 수수료 중 13%는 기사에게, 10%는 기업에게 다시 환원합니다. 기업과 기사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기업과 기사 모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에요.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직퀵을 만들기 위해 안대성 대표는 500명의 물류 배송 기사를 직접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꼼꼼히 취합해 지금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죠. 하루는 얼굴을 모르는 한 기사로부터 연락이 와 "회사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 대표가 회사 위치를 왜 묻느냐고 되물어보니, 돌아온 대답은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였답니다.

"이 업종의 특징 중 하나가 기사들이 소속된 콜센터에 절대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콜센터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기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무척 놀랐어요. 그런데 '돈을 왜 많이 주느냐' 는 질문부터 '이렇게 기사에게 다 주면 사장님은 뭐 먹고 사냐'고 오히려 걱정을 해줘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기사분들께 운송비를 많이 드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본래 모두 기사분들의 몫이었는데 그동안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그분들에게 수익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죠."

안 대표는 기사들의 안전운송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상해보험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환원에 상해보험 지원까지. 이러한 안 대표의 진심이 통했는지 직퀵이 만들어진 후 ㈜이음커뮤니티는 다양한 육성산업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사업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5060 블루칼라' 위한 아카데미 만들고파

안대성 대표가 자신의 모든 경험치를 살려 지금의 사회적 기업을 만든 이유는 '직퀵'을 넘어 더 큰 세상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5060 블루칼라' 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아카데미를 만드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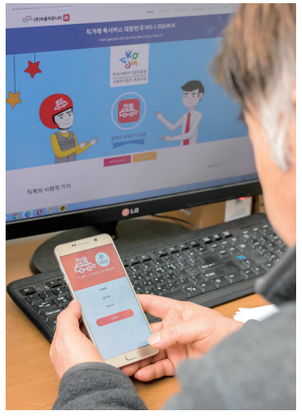
"제가 올해 60세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며 여러 어려움을 겪었어요. 회사 생활도 오래 했고,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재기가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죠.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 '5060 블루칼라'를 위한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 분야에서 일하는 기사분들은 배움이 약하거나, 사업을 하다가 망한 분들이 많습니다. 80% 이상이 사회적 약자들이죠. 정상적인 근로 기회를 갖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 시장의 구조가 아무리 취약하다 해도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노년기 이후의 삶에서는 자신의 일을 건강하게 갖고있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5060 블루칼라' 들을 위한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같이 놀고,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안대성 대표의 기업 ㈜이음커뮤니티의 이름이 왜 '이음' 인지 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기업, '5060 블루칼라'와 사회를 이어주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죠.

"이 산업 자체가 투명해져서 기사분들의 안전대책이 보강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작은 바람이라도 만들어보자는 의지인 거죠. 그 작은 바람이 보다 큰 바람이 될 수 있도록 아카데미를 만들어 컴퓨터도 놓고, 컵라면과 커피도 잔뜩 쌓아둔 다음 함께 바둑도 두고 친구도 사귀며 좋은 사업 아이템을 나누는 장을 만들고 싶어요. 5060대에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 힘든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누구든 일을 찾고 싶은 분들이 언제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죠."

이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안대성 대표는 '직퀵'이 보다 많은 이용자를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두 발 벗고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퀵 물류 배송 시장의 구조. 그 작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안대성 대표는 오늘도 사람과 사람의 '이음'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산업 자체가 투명해져서
기사분들의 안전대책이
보강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작은 바람이라도 만들어보자는
의지인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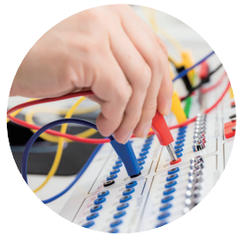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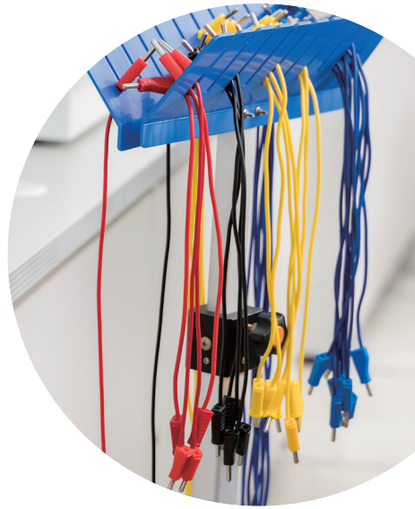
글 윤진아 | 사진 김지원

‘평생직장’ 전기설비 기술로 든든한 2막 열어요!

전기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신소재 발달, 내선설비 정밀화와 함께 전기 관련 산업은 멈추지 않고 확장 중인데요. 발전 · 변전 설비도 대형화하면서 전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의 ‘전기설비 교육과정’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전기 설비





유망직종 맞춤형 일자리 교육

전기 분야 직종은 일정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는 2018년부터 신중년 재취업 특화과정을 운영해 최근 3기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신중년 유망직종으로 꼽히는 전기설비 교육과정은 전원설비(수변전 · 예비전원), 전기공급설비(배전 · 간선 · 배선), 부하설비(동력 · 조명 · 전열 등), 인입전선로, 약전 및 방재설비 등을 시공 · 시운전 · 유지 · 보수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대구캠퍼스 신중년 특화과정 전 교수진은 현장실무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전기인’인 만큼, 꼭 필요한 실무 위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바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실습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취업 후 현장 적응력이 빠르기로 유명한데요. 한 수 위 교육 열기 덕분에 지난해 교육생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 94.7%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캠퍼스 스마트전기과 신중년 특화과정 수강생들의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률은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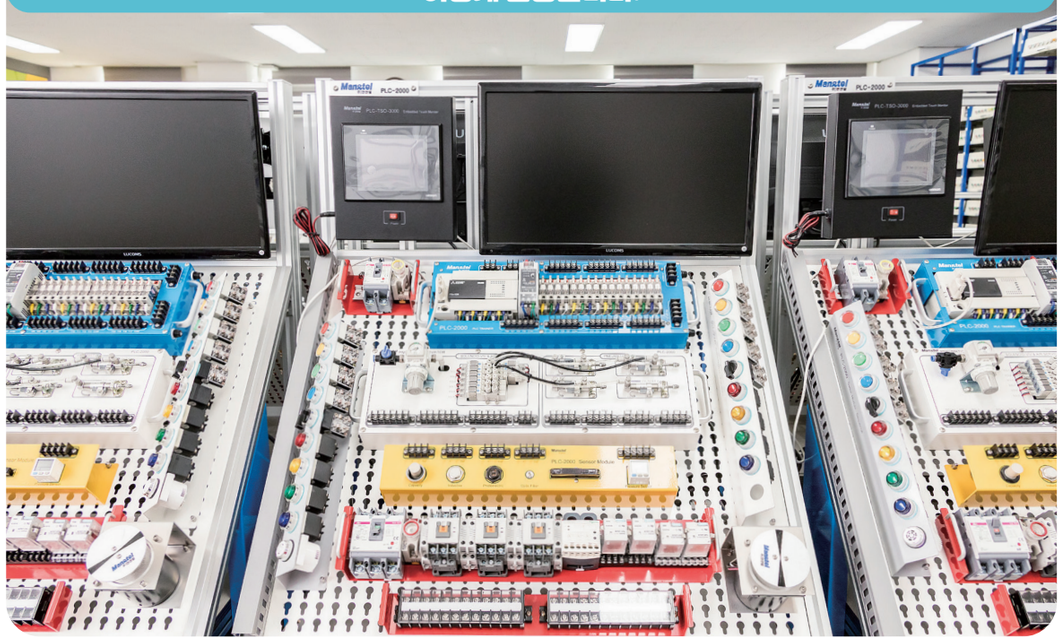
꼭 필요한 전기설비 실무, 바로 배운다

고층빌딩이 늘면서 전기설비와 시설물 관리, 전기공사 전문인력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신중년 취업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는 수강생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수료 후에도 적극적인 취업 알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만큼, 수강생 평균연령이 만 60세를 웃도는 고령임에도 60% 이상의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수강생 간 관계도 매우 돈독합니다. 매년 수료생들이 캠퍼스로 찾아와 재학생들과 멘토-멘티 행사를 진행하고, 취업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신중년 특화과정에서 비롯된 연결고리가 탄탄하게 이어져, 기수별 수료생 간 교류의 장이 뜨거운 호응 속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캠퍼스의 신중년 특화과정 수료생들은 “만약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한시라도 빨리 전기를 전공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기술만 있으면 퇴직 없는 제2의 인생을 오래 누릴 수 있는 전기설비 교육과정, 지금 도전하세요!

전기시설 관리 전문가 양성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전기설비 실무

전선관, 레이스웨이, 케이블 트레이, 기타 부속품 등을 시공하는 기술을 습득합니다. 조명설비나 동력설비 등의 전선과 케이블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공사하도록 지도합니다.

② 시퀀스 제어 실무

전기시설물 관리 및 전기공사 실무에 필요한 각종 배전이론과 공사방법을 익히고 전기설비 설계 · 시공 능력을 갖춥니다. 전기 배선에 필요한 기구 위치, 배선 경로, 결선 위치를 파악하고 배 · 결선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③ 수변전 설비 실무

수도 시설에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캠퍼스 안에 구축한 수변전 실습 장치를 활용해 수변전 설비 구성기기를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체득합니다.

④ PLC 실무

전력선 통신의 기본적인 입 · 출력 명령어를 사용해 기계장비와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 프로그래밍,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수정 · 보완 등 단계별 실습을 거듭해 시설 관리에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능력을 갖춥니다.

한국폴리텍대학교 대구캠퍼스 스마트전기과
강갑석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Q. 전기설비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총 500시간, 대략 5~6개월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관련 없는 직종에서 일하신 분들도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전공 불문 기수별 25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데요. 기초 이론을 습득한 뒤 전기공사, 시퀀스 제어, 수배전 설비 실무를 배우고, 마지막으로 재취업 컨설팅 수업까지 진행합니다.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전기기능사, 승강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등 유용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주로 어떤 분야에 취업하나요?

우리 수료생들은 빌딩 · 아파트의 전기보조업무나 시설관리를 비롯해 전기공사, 자동제어 분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평생직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요. 전기 관련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의욕에 넘쳐 우리 학교 2년제 학위과정으로 입학하는 분도 매년 1~2명 이상은 꼭 있을 만큼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Q. 중장년층에게 취업의 문턱이 높지는 않나요?

기술 기반의 전문인력이고 각 산업 분야에서 전기 관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취업에 연령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동화 설비가 늘면서 여성 교육생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Q. 대구캠퍼스 전기설비 교육과정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대구캠퍼스는 2018년 대대적인 시설 정비와 함께 신중년 특화과정 수강생만을 위한 전용 교육 시설과 휴게시설, 훈련 장비를 구축해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매년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건의사항은 바로 반영해서 개선해나갑니다. 그 결과, 원거리 거주자의 교육 편의를 위해 기숙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교육생들을 위해 맞춤 커리큘럼을 짜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IT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서울IT직업전문학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IT 분야에 21세기의 유망 직종이 모여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도 점점 늘어날 예정인데요. 다채로운 IT 분야의 기술은 물론, 분야에 대한 통찰력과 사회인으로서 꼭 알아야 하는 기본 소양을 두루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을 소개합니다.

우상준 선생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이 기술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이자 IT를 기반으로 한 융합 기술이라는 것인데요. 이렇듯 21세기는 IT 기술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으며, 관련 분야의 높은 유망성 또한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기에 취업률이 높은 편이고 창업하는 전문가들도 늘어나고 있죠.
서울IT직업전문학교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IT 기술을 가르쳐 온 교육기관입니다. 2006년 국내 최초로 쇼핑몰창업교육을 시작했으며 자바(JAVA) 프레임워크 개발,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래머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IT 기술을 통해 커다란 부가가치를 거둘 수 있는 쇼핑몰, 유튜브 영상 편집, 유니티(Unity)를 활용한 게임 프로그래밍 등도 함께 교육하고 있습니다. 연간 4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작년 고용노동부 훈련이수자평가에서 멀티 디자이너(출판편집 · 만화웹툰) 과정과 게임 프로그래밍(유니티) 과정이 A등급(최우수)으로 선정됐습니다.

게임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탄탄히 할 수 있어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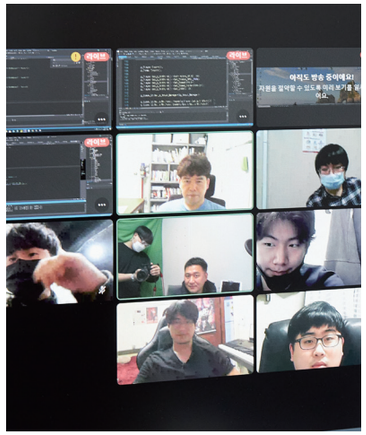
배형영 님_수강생

원래 모 대학 게임프로그래밍학과에서 학사를 취득하고 게임회사에 취업을 했는데요. 철없을 때 제대로 수업을 듣지 않아서인지 기초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심정으로 공부하고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죠. 저와 가까운 교수님과 여러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을 분석해 봤는데, 교수님이 이곳을 추천해 주셔서 서울IT직업전문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이곳에 와서 배워 보니, 역시 기대했던 대로 기초 교육을 꼼꼼히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C, C++ 등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변천사와 사용법에 대해 알려주시는 건 물론이고, 다이렉트X를 활용한 고전 게임을 만들면서 게임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공부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인간의 삶에서 놀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게임은 이 시대의 기술로 구현한 하나의 훌륭한 놀잇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게임의 수요와 발전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내년 3월까지 열심히 배우고 게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좋은 게임회사에 프로그래머로 취업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현지현 님_수강생

저는 서울IT직업전문학교에 오기 전까지 웹 개발자로 1년 정도 일했는데요. 비전공자로서 IT 분야에 취업하다 보니 모르는 이론과 용어가 상당히 많았고, 먼저 프로그래밍에 대해 배워야겠다 싶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틈틈이 즐겨 왔던 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 게임 콘텐츠 제작 실무자 과정에 들어오게 됐죠.
사실 처음에는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겁이 나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사용법이나 프로그래밍 방법을 알려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게임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다양한 배경지식을 알려 주는 데에도 공을 들입니다. 덕분에 게임 프로그램의 초석이 잘 마련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곧 유니티 프로그램을 활용한 게임 만들기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앱 스토어에 출시할 만한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게임회사에 프로그래머로 취업해서, 누구나 작품성을 인정하면서도 일상의 휴식을 선사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겠습니다!



게임콘텐츠(유니티 2D, 3D 게임 프로그래밍) 실무자 과정

게임콘텐츠 실무자 과정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게임 엔진인 유니티(Unity)를 활용해 2D 및 3D 게임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게임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단순히 유니티 사용법만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게임 레벨 · 시스템 · UI 기획, 게임 알고리즘 개발, 인공지능 및 그래핑 프로그래밍, 온라인 게임 네트워크 구축 등 게임 개발 전 과정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전수합니다. 나아가 팀별 게임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협업 능력도 함양합니다.

게임콘텐츠 실무자 과정 수료생들은 대부분 게임회사에 취업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영상처리, 가상현실(VR) ·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 게임 프로그래밍 기술을 바탕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취업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과정 수료 이후에도 강사와 함께 게임 개발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게임회사 창업도 가능합니다.

서울IT직업전문학교는 각 과정을 수료한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만화콘텐츠(홍보웹툰 · 캐릭터) 실무자 양성과정을 수료한 웹툰 작가들의 현장 경험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기업 및 공공기관과 웹툰 작가들을 이어주는 홍보웹툰 에이전시도 운영하고 있죠. 이렇듯 서울IT직업전문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현장 실무를 긴밀하게 연결시키려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IT 교육으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세요!

이상헌 학교장님

프로그래밍과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정규 과목으로 코딩(Coding)을 가르칠 정도죠. 우리는 일상에서 IT를 분리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래밍과 IT 콘텐츠 제작 분야는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할 것이며,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자랑합니다.

서울IT직업전문학교는 일선에서 두루 쓰이는 프로그래밍 기술과 프로그램 사용법은 물론, 콘텐츠 기획 · 마케팅 등 다양한 IT 기술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폭넓게 교육합니다. 더불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모의면접, 노동법 교육 등도 함께 제공하니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IT 전문가로 나아가는 길,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Point

누구나 신청 가능
단,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제외

유효기간 5년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 관계 없이 5년간 사용 가능

훈련비 지원
저소득층 500만 원,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 훈련 전액 지원

개인맞춤 수강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 수강

HRD-Net 실시간 확인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 실시간 확인

자부담 비율 동일 적용
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자부담 비율 동일

※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훈련과정 수강 신청의 경우 140시간 이상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워라밸 앞장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노동부가 안착시키겠습니다

2018년부터 국내에서 시작된 주52시간제는 그간 더 많은 기업으로 시행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상승시켜왔습니다. 주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중 사회문화환경 분야 1위를 한 바 있기도 한데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러스를 맞춰주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지난 정책적 노력과 앞으로의 과제를 고용노동부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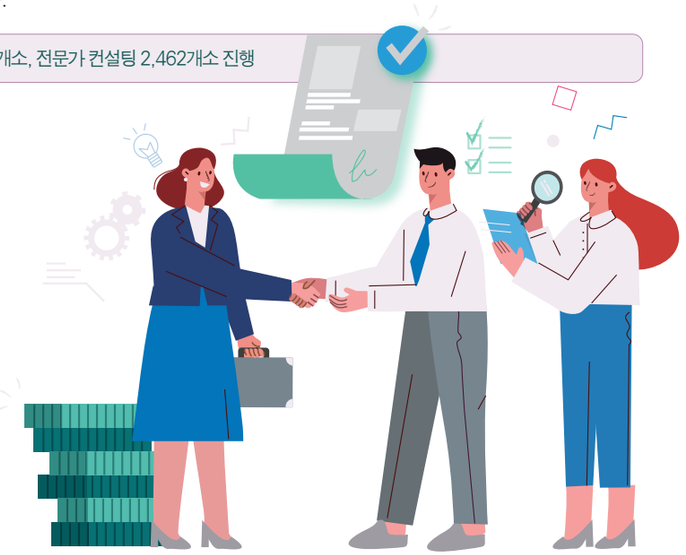
주52시간제 그동안의 노력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1년 반의 시차를 두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019년 말, 50~299인 기업의 법 적용 시점이 다가오면서, 좀 더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고,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다시 1년의 계도기간을 주어 준비를 완료하도록 했죠.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장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기울이는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전국 48개 지방 노동 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 구성과 컨설팅 제공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구성하여, 주52시간제 준비에 필요한 각종 상담이나, 정부지원과 연계한 컨설팅 등을 제공했습니다.

* 11.25. 현재까지 현장 지원 1,161개소, 전문가 컨설팅 2,462개소 진행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주요 업종별 지원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는, 제도 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시 정책자금, 기술보증**도 지원했습니다.

* 설명회 210회, 전문교육 오프라인 5회(117명), 온라인 3개 과정 매월 운영(133명)
** 정책자금 지원 48개사, 405억 원('20.10월) 기술보증 지원 만기연장 8,141개사(2조 2,576억 원), 신규보증 44개사(337억 원)

건설업은, 주52시간제에 따른 노임증가를 공사단가에적기 반영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했고,주40시간 기준의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도 추진 중입니다.

* 개편된 산정체계 '20.1월부터 적용 중 (단가 공고, 20.1월)

SW 분야는, 공공SW 사업의 조기발주를 의무화*하고,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 · 보급**하고 있습니다.

* 차년도 발주일정 전년도 9월 결정 및 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 의무화(고시 개정, '20.7월)
** SW종사자 보호를 위한 서울지역 표준계약서 시범도입('20.5월~)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인건비 확보를 통한교대인력 지원, 교육 · 휴가 시 대체인력 지원* 등을 했습니다.
문화예술 · 스포츠 · 관광 등의 분야별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를 제작 · 배포**하였습니다.

* 교대인력 480명 채용, 대체인력 233명 채용('20.10월 기준)
** 콘텐츠, 스포츠 분야 등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배포('19.12월~)

근로시간 선제적 단축 기업에
인건비 지원과 인력 매칭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이나,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우선적으로 인력 매칭도 제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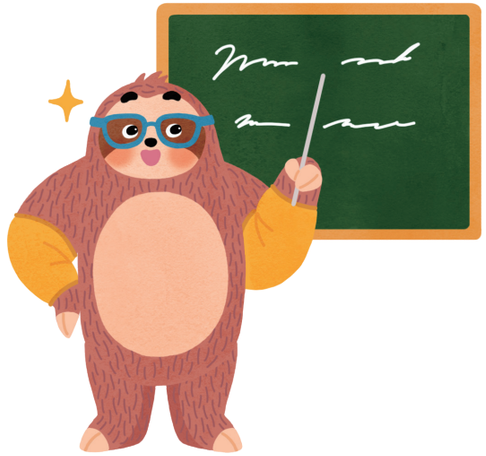
*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최대 50명분) 지원: 1차 67개소 1,294명분 지원, 2차 23개소 450명분 신청(진행중)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연간 480~1,200만 원 지원(1~3년): 현재까지 370억 원(197개소, 12,652명) 지원(10월 기준)

2021년에도 지원은 계속!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내년에도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시행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및 노무관리지도 등을 50~299인 기업에 확대 · 시행하면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인력알선, 재정지원 등)을 연계 지원하는 방안 등 추진

News



한국판뉴딜

1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집 지역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월 25일 대전시 유성구와 세종시 소재 중소규모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 패트롤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현장은 공사금액 100억 원 이하에 시공순위가 낮은 중소규모 현장으로서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골조공사, 외부 마감작업 등이 주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패트롤점검은 최근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강조한 대통령 말씀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중소규모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계획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패트롤카를 통해 대전시 유성구 신동(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사업 부지)에 소재한 건설현장 5개소를 순회하며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 착용 등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방송을 송출했습니다. 이후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불시 패트롤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면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서 현장 밀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패트롤점검을 통해 현장을 샅샅히 살필 것이며, 패트롤카 확대를 통한 순찰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와 안전관리 협업 강화 등 현장밀착형 관리감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사망사고 감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현장에서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안전관리에 동참하여 줄 것"을 덧붙였습니다.

* 건설업 패트롤점검:중소규모 건설현장 불시점검을 통해 즉시시정 및 자율개선 유도, 점검 후에도 개선이 미흡한 현장은 엄정한 행·사법조치

② 산재노동자 재활 2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재활 도입 2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산재노동자 재활 2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노사단체, 산재노동자단체, 관련 학회 · 연구원 전문가와 관련 분야 종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재활사업의 발전과 성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재활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재활 우수사례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념식에 맞춰 2012년 설립된 '아시아산재보험협회(AWCA)'* 재활분과위원회 화상회의를 개최해 아태지역 국가들과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나라 재활사업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행사는 수상자 등 일부 필수인원 참석 하에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행사 전 과정 중 참석자 발열 측정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재해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을 촘촘히 설계하여 더 많은 노동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과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재해노동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활지원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조기 직업복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 '05년 이래 실시 중인 한-ILO 산재보험 초청연수를 계기로 아태지역 내 사회보장기관 간 상시적 ·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12년 처음 설립한 협의체

③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11월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의 준수 및 노력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이번 개정 작업은 '16년 제 ·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원의 주요 판결례 등을 반영하여 노동현장에 보다 적합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단」과 근로감독관의 가이드라인 배포 및 안내, 준수 권고 활동 등을 통하여 노동현장의 인식 확산 및 자율 준수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구조개선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및 세액공제제도 등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④ 2021년부터 30인 이상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18.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됩니다. '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3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104천 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 및 준수사항 등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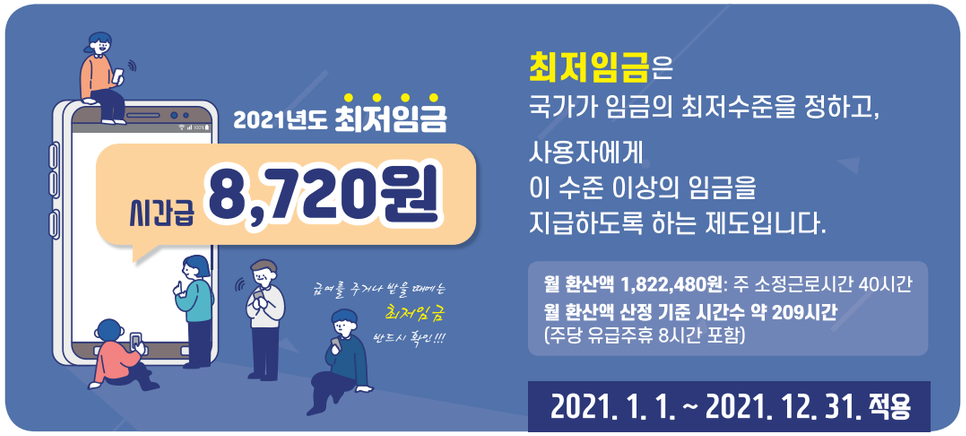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라면서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⑤ 제5회 일 · 생활 균형 컨퍼런스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24일 서울 세텍(SETEC)에서 「제5회 일 · 생활 균형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참관 없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와 일하는 문화혁신'을 주제로 명사 강연,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영상 시상식, 퓨전 국악공연 등이 '일생활균형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생하게 중계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일하는 문화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뉴노멀(새로운 일상) 근무방식으로 정착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인 이상 기업 인사담당자의 66.7%가 재택근무 도입으로 생산성이 보다 높아졌다는 긍정적 답변을 보였습니다. 특히, 초기 생산성 저하 우려와 달리, 업무효율 및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근무 형태로서 정착되는 추세입니다.

⑥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통합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11월 26일, 한국폴리텍대학교 서울정수 캠퍼스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통합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①사회적 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②사회적 경제 친화 도시 ③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이 온라인에 모여 수상 소감을 나누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기업 육성 사례를 공유하여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사회적 경제는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전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 기반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고마움을 전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살려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관심과 격려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Healing

62
Follow Your Dream
스타트업으로 지도 없는 항해를 시작해볼까요?

66
새해 첫날은 모두 떡국만 먹는 줄 아셨다고요?

68
신년 업무 목표, 잘 서포트해 줄 플랫폼 어디 없을까

70
새 마음 새 뜻 새내기 직장인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74
미니멀리스트가 꿈이야? 날 따라 해봐요~

76
겨울철, 꽁꽁 어는 손발 때문에 고생한다면 주목!

78
시작하는 당신을 위한 에너지 가득한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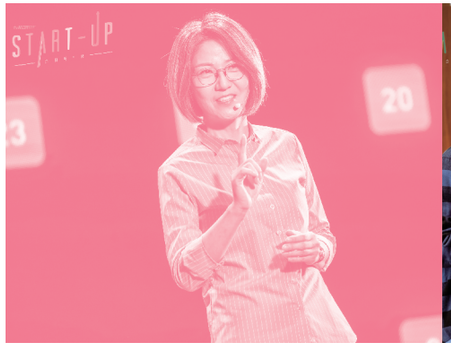
82
애독자 모의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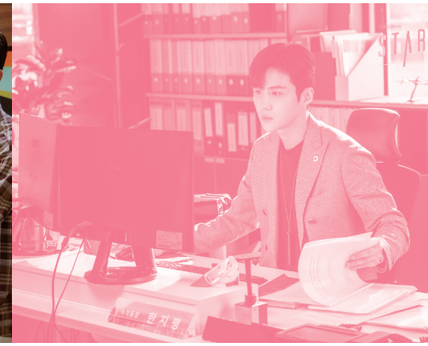
Follow Your Dream

스타트업으로 지도 없는 항해를 시작해볼까요?

한국의 실리콘 밸리, 판교의 IT 회사들을 중심으로 많은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기업 가치 1조 원에 이르는 유니콘 기업들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누구나 CEO를 꿈꿀 수 있는 스타트업 전성시대가 도래한 것일까요?

창업자들의 인큐베이터, 샌드박스에 입주하다





마치 영화 세 얼간이를 보는 듯 어리바리한 개발자 도산, 용산, 철산. 낡은 옥탑방에서 '삼산텍'이라는 이름을 걸고 창업했지만, 투자를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카드는 샌드박스 입주! 초기 창업자들에게 멋진 사무실 공간과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업자들의 꿈의 터전이었죠. 2년간 고생하다가 샌드박스 입주의 행운을 누리는 '삼산텍'에 합류한 이는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 전환에 실패한 서달미 대표. 그녀 또한 멋진 삼산텍을 창업하겠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샌드박스에 입주한 청년들. 저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은 다양합니다. 각기 다른 목표를 품고 이곳에 입주했지만, 그들의 꿈은 모두 하나였죠. 스타트업 삼산텍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창업을 하고 싶어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지원 정책 정보를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 통합 브랜드 'K-스타트업'의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프로그램, 창업교육, 창업기반시설 및 공간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세상의 없는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

3명의 개발자와 1명의 기획자이자 대표, 1명의 디자이너로 구성된 작은 규모이지만, 열정을 불태우는 삼산텍 멤버들. 시력을 잃어가는 서달미 대표의 할머니를 보며 아이디어를 얻어 '눈길'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를 들은 액셀러레이터 지평은 그들의 아이디어에 제동을 걸죠. "좋은 취지를 가졌다고 모두 수익성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몇 차례의 논의와 고민을 끝낸 그들은 결국 '눈길' 서비스 개발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숱한 밤을 지새우며 서비스를 만들고, 드디어 대망의 사업 설명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규모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린 것이죠. 과연 이들은 투자자를 만나고 사업의 날개를 달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잠깐!

창업지원 정책, 어떤 것이 있나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층들을 위해 창업 초반에 운영자금을 지원해주고 새로운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 사업을 개시한지 3년 미만인 경우 기업당 1억 원 이내로 저리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조하세요!

유니콘으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

대규모 투자자를 만난 삼산텍 멤버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기업을 인수한 대기업 투스토에서 계약 직후 개발자 3명만을 실리콘밸리 본사로 데려가고, 기획자인 서달미 대표와 디자이너를 해고해버립니다. 결국 이렇게 각자의 길을 찾아 흩어진 삼산텍 멤버들. 3년의 시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쌓아나간 이들은, 3년 만에 다시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 이번에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에 뛰어듭니다. 라이벌인 대기업 모닝그룹에서 핵심 개발자 인력을 빼가고, 랜섬웨어 바이러스를 통해 방해하는 등 악질적인 공격을 하지만. 이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해내며, 혜성 같은 스타트업으로 주목받죠. 큰 규모의 입찰 사업에도 참여하며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들. 이제 유니콘이 되어 훨훨 날아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니콘 기업이 뭔가요?

상상의 동물 유니콘처럼 보기 드물게 크게 성공한 스타트업에게 붙이는 이름입니다.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원에 이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일컫는 데요. 한국의 경우 쿠팡, 비바리퍼블리카, 야놀자, 위메프, 무신사, 쏘카 등이 유니콘 기업에 해당한다고 해요.

새해 첫날은 모두 떡국만 먹는 줄 아셨다고요?

한 해를 맞이하는 풍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왔고 여전히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새해 아침에 떡국을 먹어왔는데요. 국가별로 새해 아침에 먹는 다양한 음식과 풍습이 존재합니다. 가까운 중국부터 미국, 프랑스, 불가리아, 그리스, 독일까지! 세계 각국의 새해 음식을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미국 호핑존

미국의 남부 지방에서 즐겨 먹는 음식으로 밥과 돼지고기, 야채 등으로 구성된 요리인데요. 남북전쟁 당시 인근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 가축 사료로 쓰던 콩과 자투리 야채 등을 가지고 만든 음식에서 유래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대찌개와도 유래가 비슷한 이 음식은 콩이 행운을 불러온다고 믿는 풍습 때문에 새해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중국 생선과 만두

중국의 새해 명절은 춘절(春節)이라고 합니다. 이때 먹는 음식은 대표적으로 생선과 만두가 있죠. 남방지역에서는 생선이나 떡을 먹고 북방지역에서는 만두를 먹습니다. 생선은 한 해를 넉넉하고 풍족하게 지내라는 뜻으로 먹는다고 하네요. 한편 북방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가족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같이 모여 만두를 빚어 먹습니다. 내용물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부추와 돼지고기를 넣어 먹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샴페인과 크레이프

낭만의 나라 프랑스에서는 샴페인과 크레이프를 새해 음식으로 먹습니다. 크레이프는 얇게 부친 팬케이크로 동전을 쥐고 굽는 것이 이색적이에요. 이것은 신년에 돈이 굴러들어오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하는 의식이랍니다. 또한 부드러운 크레이프에 어울리는 달콤하고 톡톡 쏘는 샴페인을 곁들여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해를 기념한다고 하네요.

불가리아 포카치아

불가리아에서는 새해에 포카치아라고 하는 빵을 먹는데요. 특이한 점은 빵 안에 동전을 넣는다는 점입니다. 납작하고 넓은 포카치아 빵을 찢어서 나누어 먹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한 조각씩 나눠줍니다. 이때 동전이 든 빵조각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해에 행운이 깃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혼자들은 첫 번째 빵조각을 베개 아래 숨겨두고 자는데 그 날 꿈에 나타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는 미신이 전해져 내려온답니다.

그리스 바실로피타 케이크

그리스는 새해에 성 바실리우스를 경축하기 위한 축제를 여는데 이때 바실로피타 케이크를 굽습니다. 맛과 모양은 카스테라와 유사한데 매년 1월 1일 집과 집안사람들을 축복하고 행운을 가져다줄 것을 바라며 케이크를 나눠 먹습니다. 커피와 함께 케이크를 즐기는데 불가리아의 포카치아와 동일하게 동전이 들어있는 조각이 당첨된 사람에게는 일 년 내내 행운이 깃든다고 합니다.

독일 마지팬 피그

마지팬 피그는 아몬드와 설탕 등의 재료를 갈아 반죽하여 먹는 독일의 전통 디저트인데요. 보통 핑크색 색소를 넣어 돼지 모양으로 빚은 덕분에 앙증맞은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받는 사람의 안녕을 빌며 주고받는 마지팬 피그는 예쁜 모양에 비해 만드는 방법 또한 간단하다는 점이 매력이에요. 독일에서는 돼지가 행운을 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 모양의 과자를 나누는 것이 새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예절이라고 하네요.

신년 업무 목표, 잘 서포트해 줄 플랫폼 어디 없을까

새해가 되면 많은 직장인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더 똑 부러진 업무 계획 세우기부터 다이어트, 독서, 영어공부 등. 업무역량과 자기계발 역량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당신을 위해 흥미로운 스케쥴러 기능의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들을 소개합니다.

S메모

네이버 자료실 랭킹 1위 누적 다운로드: 1,000만

간단한 메모부터 중요한 일정까지 스케쥴 관리의 A to Z를 가능하게 하는 S메모는 정말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PC와 모바일이 동기화되는 메모장이라 사무실 데스크톱에서 작성한 스케쥴과 메모를 모바일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모 관리, 스케쥴 관리, 화면캡처, 다양한 위젯, 백업과 복원, 주요일정 알람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직장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프로그램입니다.

심플 달력: 스케쥴 플래너, 타임 관리 앱

별점: 4.7 다운로드 횟수: 1.3만

심플 달력은 개인 플래너는 물론 일 · 주 · 월별로 세세하게 스케쥴을 관리할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20가지 이상의 위젯 색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분에 따라 다채로운 테마를 즐길 수 있죠. 가족, 친구, 직장동료에게 일정을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사용했을 때 더욱 시너지가 좋습니다. 다양한 글꼴 크기 또한 설정이 가능해서 4,50대의 유저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철저하게 심플하고 편리한 스케쥴러를 원한다면 심플 달력을 추천드립니다!

DAILY NOTE- 하루 메모 일기장

별점: 4.6 다운로드 횟수: 9.6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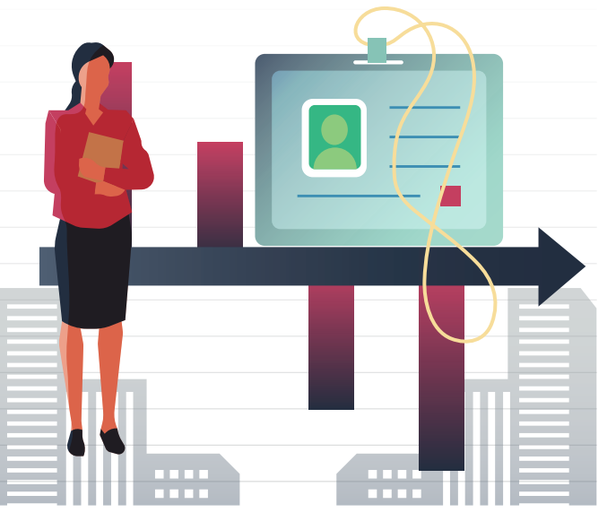
똑 부러지기만 하는 건조한 스케쥴러에 싫증이 나신 분들은 감성을 가미한 DAILY NOTE를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 하루를 글로 기록하고 달력으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일정을 등록하면서 그 날의 한 줄이나 일기를 적을 수 있어 감성과 이성을 모두 충족하는 스케쥴러입니다. 다양한 테마를 지원하고 있으니 화이트 배경, 노트 배경, 블랙 배경 등 취향에 따라 골라 쓸 수 있어요.

TimeTree

별점: 4.8 다운로드 횟수: 4.4만

2,500만 이상의 유저가 애용하는 무료 스케쥴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TimeTree는 여러 스케쥴러 애플리케이션 중에서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Apple이 선정한 'App Store Best of 2015 올해의 베스트'를 수상, 'Mobile Award Korea 2017'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을 정도로 많은 유저에게 사랑받으며 인정받는 스케쥴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일정 등록, 변경의 리얼타임 알림은 물론 용도별로 복수의 캘린더를 개설할 수 있죠. 또한 일정마다 제공되는 대화창으로 스케쥴과 관련한 얘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날짜 미정인 일정은 보관도 할 수 있으니 놓치는 스케쥴 없이 야무지게 스케쥴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글 구대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평로)



새 마음 새 뜻 새내기 직장인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시작은 큰 설렘을 주지만 한편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지금 출발선 앞에 선 당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Q1

대기업 공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취업 문을 뚫어서 부모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시고,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관문인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 이상을 판정받았습니다. 결국 3번 정도 재검사 요청을 드렸지만, 간 수치가 여전히 좋지 않아서 입사 채용 취소 위기에 놓였는데요. 인사팀에서는 추후 간 문제로 발병 시 산재처리는 불가함을 명시한 서약서를 작성한다면 입사 처리를 해 준다고 합니다. 취업이 너무 간절했기에 당장 서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고픈 마음인데요. 문득 이 서약서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지 걱정됩니다. 원래 이 같은 서약서 작성이 정당한가요? 추후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없을지 걱정되어 여쭙습니다.

A_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법적 책임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검진으로 부여 업무의 적절성 여부, 기존 질환의 악화 여부, 다른 직원에의 전염 여부 등을 판단하고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는 근로자를 별다른 조치 없이 해당 질환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이나 질병 악화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바, 기존 질환의 악화로 인해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그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의 법률적 논란이 커질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 사례에서, 상담자는 어떠한 내용의 것이든 회사가 요구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여 근로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서약서상 간 문제로 발병 시 산재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들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힘들며, 다만 기존 질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관리상 주의촉구의 관점에서는 유효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즉, 상담자가 재직 중에 기존 간 관련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보상을 신청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며, 한편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상병을 더 악화시킨 경우에는 서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보상은 회사가 신청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재해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조사를 받아 승인 여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Q2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것을 약속받고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아직 수습 기간 중인데요. 문제는 면접 당시 약속했던 연봉 금액에 내일채움공제 금액을 포함시켜 말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금액이 2년을 무사히 근무했을 시 1,600만 원인데, 저에게 약속한 연봉 3,2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이 내일채움공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입사한 지 한 달 후인 급여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진짜 연봉은 2,400만 원 수준으로 생각보다 훨씬 낮은 급여액이었던 거죠. 제가 알기론 내일채움공제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내는 돈은 따로 없고 오히려 지원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내일채움공제를 연봉에 포함하겠다고 우깁니다. 이미 퇴사할 마음을 먹긴 했지만, 저를 속인 회사가 너무 괘씸합니다. 아까운 시간을 날린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하고요. 국가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를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A_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이 되는 만 15~34세 청년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2년간 300만 원(2년 형의 경우)을 적립한 때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400만 원을 기여하고 정부가 900만 원을 적립하여 총 1,6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동 제도는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계약해지나 지원금 반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가 먼저 청약 신청을 하고 이후 근로자가 청약 신청을 순차적으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청약 승낙 여부를 결정하고 청약 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합니다.

근로자는 계약의 성립일 이전에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 성립 이후에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시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거나 지원금을 신청, 수급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계약해지, 가입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와 관련해 ①상담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봉 3,200만 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며, ②통상 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봉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기초한 지원금은 별개이기 때문에 해당 지원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약정할 수는 없으며, ③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해당 제도가 금지하고 있는 참여자로부터 임금을 돌려받는 경우의 부정수급이나, ④회사가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참여자의 임금을 부풀리는 경우"의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자는 현재 입사한 지 1개월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①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청약을 하지 않거나, ②이미 청약을 하여 승낙을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 충족에 따라 이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동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담자는 현재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급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는 그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 조치 등의 제재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Q3

입사 일주일 차 신입사원입니다.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라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하긴 했지만, 면접 당시 들었던 상황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당혹스럽습니다. 사수도 없고, 제 자리도 마땅치 않아서 임시 데스크 같은 곳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 업무와 상관없는 페이퍼만 보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모두 바빠 보이고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하라는 말만 합니다. 어쩐지 잘못 입사한 것 같아서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습 기간 없이 바로 정직원 계약서를 쓴 바람에 일단 한 달은 버텨보려 합니다. 정 맞지 않으면 첫 달 월급을 받고 퇴사하려 하는데요. 문제는 이 경우에도 제가 퇴사할 때 한 달 전 통보를 해야 할까요? 또 짧게 근무하고 퇴사한 기록이 다른 회사 이직 시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고 퇴사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_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에 수행하는 업무 및 그에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에 수행하는 업무 및 그에 대한 임금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시간 중에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례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업무의 부여 부분에서 열악한 중소기업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퇴사 시 사직서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1개월 전에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 회사가 반려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별도의 법 규정은 없으며, 다만 민법에 월급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회사에 통고한 때에는 다음 임금산정 기간 만료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예컨대 매달 1일~말일로 월 급여를 산정하는 회사에서, 12월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회사가 거부하면 1월 31일 경과로 퇴직의 효력 발생).

상담 사례에서 상담자는 근로계약서에 사직서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면 되고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다만 상담자의 사직서 제출을 회사가 반려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경과 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상담자가 판단하기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즉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사직서 수리 거부시 퇴직의 효력 발생은 민법의 정함에 따릅니다.

근로자는 처음부터 근로계약서가 취소된 게 아닌 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의 신분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법정요건에 따라 4대 보험 등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당 회사가 담당자도 없고 바쁘기 때문에 과실로 4대 보험 신고를 누락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을지언정 법정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임의로 본인의 근로 기록을 삭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회사 지원 시 업무수행 이력과 거의 관계가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부실한 근무 이력은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4대 보험 이력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4

꽤 규모가 큰 강소기업에 입사해 이제 막 3개월 수습 딱지를 뗀 병아리 사원입니다. 어려운 시국에 취업에 성공하여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3개월 수습사원 동안 70%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4개월 차 급여가 들어오는 날부터는 100%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 4개월 차 급여가 들어오는 오늘 갑자기 말을 바꾸었습니다. 제 업무 능력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수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고 한 건데요. 정직원 전환이 될 것을 의심치 않고 성실히 근무하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남은 3개월의 수습을 더 채운다고 정직원 전환해줄 것이 의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제 상황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 _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신입사원 채용 시 수습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수습 기간은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적용할 수 있는데, 다만 반드시 당초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특히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법적으로 새로 입사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 본인에게 작성한 계약서를 배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의 경우에 상담자는 먼저 본인이 입사할 당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표시 또는 3개월 수습한다라고 표시)되어 있고 수습 기간 만료 시 연장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수습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초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3개월까지만 수습 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할 수 있는 바, 상담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데 임금(70%)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데 3개월을 초과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위 내용을 확인한 후 회사 인사담당자와 면담하여 당초 채용 공고 내용, 채용과정에서 안내받은 수습 기간 적용,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 기간을 언급하고 추가로 수습 기간을 연장하는 것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한편으로는 회사가 판단하기에 수습 기간을 연장할 정도로 본인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본인이 보완해야 할 내용을 안내해 달라고 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피력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만약 상담자가 수습 기간 3개월 추가를 수용할 경우에는 ①명확한 수습 기간 설정을 요구하고 ②추가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을 전제로 임금의 70~10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위반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손쉽게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나 향후 계속 근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화로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회사가 원하는 대로의 개선 노력 의지 피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니멀리스트가 꿈이야? 날 따라 해봐요~

몇 년 전부터 미니멀리즘 열풍이 대세입니다. 미니멀리스트로 살고 싶긴 하지만 막상 집에만 오면 넘쳐나는 옷과 가구, 책 등에 파묻혀 지내신다면? 당신을 자연스럽게 미니멀리스트로 만들어줄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미니멀리즘 라이프 스타일! 그게 뭐야?

미니멀라이프(Minimal Life)는 단순하고 간결한 생활방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심플라이프의 동의어로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 등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며 사는 삶을 지칭하죠. 쇼핑을 하거나 불필요한 이동시간을 줄이며 여가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며 집중하는 것 또한 미니멀리즘에 해당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관련 서적이 등장하며 많은 셀러브리티들이 자신이 미니멀리스트임을 밝혀 본격적인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죠. 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수도권에서 자취하는 젊은이들이 비교적 좁은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유행하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1 설레지 않으면 버리세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곤도 마리에: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는 프로그램 타이틀처럼 '설렘을 주나요?(Does it spark joy?)'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네(Yes)'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버려야합니다. 물론 아깝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미션이죠. 하지만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버리고 내가 애착을 가지거나 자주 사용하는 물건만 남기기 시작하면 집안은 훨씬 넓고 청결해집니다. 결코 읽지 않을 책들, 공간을 차지하기만 하는 가구, 한 번도 손이 가지 않는 옷가지 등 비움의 미학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2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상투적인 표현이기 하지만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꼭 필요한 물건만을 소유하며 심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은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생활에 실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아나바다,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주기

물건을 버리는 것이 환경과 돈을 생각했을 때 망설여진다면 필요로 하는 지인에게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소품이나 액세서리, 새 제품에 가까운 전자제품을 주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요긴하게 쓴다면 좋겠죠? 하지만 받는 사람의 생각을 꼭 물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치도 않는데 몇 번 쓰지 않아 새 것에 가깝다고 주는 것은 실례일 수 있기 때문이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미니멀리즘. 환경과 지갑을 생각하는 건강한 문화로 정착됐으면 좋겠네요.

4 더이상 충동 구매는 그만

물건을 사기 전에는 2번 생각을 하자는 것. 현대인들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광고에 노출되며 소비를 부추기는 환경에서 살고 있죠. 실제로 필요하지는 않은데 순간 혹해서 물건을 구입하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미니멀리스트들은 무언가를 구입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물건인가? 구입한다면 많이 사용할 것인가 등등이요. 충동 구매는 미니멀리스트 사전에 없습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사는 현명한 소비습관.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 버리기 기술

- ☐ 물건, 생각과 함께 비워내기
- ☐ 인간관계 정리하기
- ☐ 물건이 많은 이유 생각해보기
- ☐ 컬러 통일하기
- ☐ 활용도 높은 가구 들이기
- ☐ 벽에 걸지 않기
- ☐ 욕실용품 줄이기
- ☐ 구역과 테마 정해서 비우기
- ☐ 하나 들이면 하나 내보내기
- ☐ 장식용 책은 No
- ☐ 도서관이 곧 나의 서재다
- ☐ 국민 도서관 책꽂이 이용하기
- ☐ 큰 박스 3개 비우기
- ☐ '바이백 서비스' 활용하기
- ☐ '샛별배송' 이용하기
- ☐ 홈 시스템 가구 활용하기
- ☐ 물건 수 정하기

겨울철, 꽁꽁 어는 손발 때문에 고생한다면 주목!

언제나 찬 손발을 가지고 있는 수족냉증인들에게 겨울은 가혹한 계절이죠. 장갑과 양말 휴대용 손난로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때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족냉증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몸 안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실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작은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꾸준히 따라하며 습관을 들인다면, 추운 겨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거예요!

손발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5분 간단 스트레칭

책상에 앉은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손을 쭉 뻗습니다. 손바닥이 전면을 향하게 한 후 손목을 아래로 꺾습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손목을 아래로 꺾어 이번에는 손등이 전면을 향하게 스트레칭 합니다. 10회 이상 반복하면 팔의 근육과 인대의 이완에 효과적이며 손끝까지 혈액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벽을 마주보고 서거나 의자의 등받이를 잡고 똑바로 섭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뒤꿈치를 듭니다. 이때 발의 앞쪽, 특히 발가락에 무게를 줍니다. 얼굴은 전면을 향한 채 10초 동안 버팁니다. 숨을 내쉬면서 뒤꿈치를 천천히 내립니다. 10회 반복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뻗습니다. 허공에 알파벳 A, B, C를 쓰되 무릎과 골반을 움직이지 않고 발목만 움직입니다. 반대쪽 발도 똑같이 합니다. 10회 반복합니다.

몸을 데워주는 차 마시기

생강차

생강은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의 흐름을 향상시켜 냉증에 효과가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염 항균 효과가 있는 '진저롤'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천연 진통제로도 유명합니다. 생리통이나 감기 등의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대추차

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품으로 면역력 향상과 혈액순환 개선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약재에 비해 독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뇨작용이 뛰어나 몸이 자주 붓는 사람이 수시로 섭취하면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피차

감미로운 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계피. 계피의 핵심 성분인 '신남알데하이드'는 피를 맑게 하여 어혈과 혈관 속 지방을 제거해줍니다. 이러한 작용은 말초혈액순환을 개선해주어 수족냉증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사과와 꿀, 생강 등과 함께 달여 먹으면 맛과 영양적 측면에서 더욱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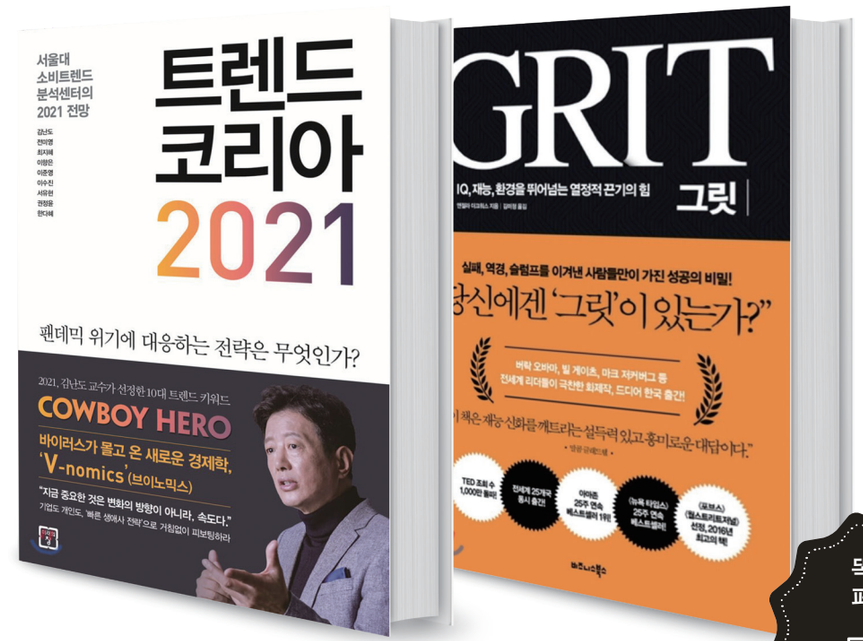
시작하는 당신을 위한 에너지 가득한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씩씩한 갤러리

소처럼 우직하게!
〈이중섭의 소 연작〉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보았을 법한 작품이죠. 2021년 소의 해를 맞아 추천하는 작품은 이중섭 작가의 소 연작 시리즈입니다. 이중섭 작가의 소는 일종의 자화상으로 그려진 작품인데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모진 풍파에서도 소처럼 힘찬 기상과 기백으로 살아가겠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총 4개의 연작으로 이어지는 소는 그려진 시기별로 조금씩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즐거움이 있죠. 이중섭 작가의 소 시리즈 작품들과 함께 한 해의 시작을 힘차게 열어보세요.

한 해의 시작, 새로운 달력으로 교체하는 당신을 리프레쉬해 줄
신선하고 도전적인 작품들을 만나볼까요?



뚝뚝한 페이퍼

트렌드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트렌드 코리아 2021〉

연말연초가 되면 가장 주목받는 베스트셀러죠. 한 해의 트렌드 경향을 되짚어보고, 다가오는 트렌드를 미리 살펴보는 이 서적은 지난 2021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해 이제는 꾸준히 서점가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난도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는 가장 영향력이 큰 트렌드 연구소인데요. 그들이 지목하는 10개의 키워드는 연간 다양한 영역에서 화제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취를 위한 투지와 용기
〈GR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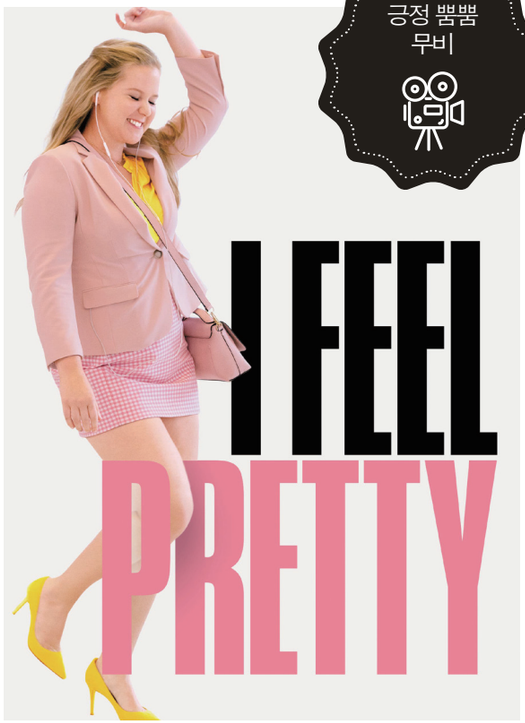
1월만큼 자기계발서가 각광 받는 시기가 있을까요? 〈그릿〉은 아마존 25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세계 유수 대학교수들이 추천하면서 주목을 받은 책이죠. 국내에서도 100쇄 돌파기념으로 리커버 에디션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책의 제목이자 핵심 키워드인 그릿은 성공과 성취를 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투지와 용기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이책을 집어 들고 투지를 불태워 볼까요!

언택트
트래블

언택트 시대의 새해맞이 〈랜선 일출 여행〉

해마다 각지의 사람이 모여드는 일출 명소의 풍경도 올해는 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대신 랜선으로 일출을 보는 언택트 일출 여행이 대세가 될 전망인데요. 전국 각지 일출 명소뿐만 아니라, 해외의 일출 명소까지 찾아볼 수 있는 EBS 다큐멘터리부터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일출을 보여주는 각종 영상들을 통해 집에서 안전하게 일출을 즐겨보자구요!

긍정 뿜뿜
무비



This is me 〈위대한 쇼맨〉

가슴이 웅장해지는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은 한 남자의 도전과 실패, 야망과 사랑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가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펼쳐집니다. 뮤지컬 영화인 만큼 특히 수록곡이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스스로 모습을 긍정하고, 자신감 있게 세상으로 나오는 호소력 있는 넘버 'This is me'는 큰 히트를 치고,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죠. 화려한 영상미와 호소력 짙은 노래, 그리고 감동적인 메시지까지 만나볼 수 있는 영화 〈위대한 쇼맨〉을 통해 자신감을 빵빵하게 충전해보세요!

올해도 다이어트를 결심했나요? 〈아이 필 프리티〉

오늘도 어김없이 다이어트를 새해 계획으로 세운 당신.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불만스럽고, 누군가의 지적에 위축되곤 한다면?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어느 날 운동을 하다가 머리를 부딪혀 자신의 모습이 매우 아름답게 보이는 환각 상태에 놓이고, 자신이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자신감이 가득해진 주인공 앞에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자아존중감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랑스러운 영화, 〈아이 필 프리티〉로 기분 좋은 새해를 맞아볼까요?

2021년 1월호

애독자 모의고사

성명		전화번호	

모든 해답은 〈월간 내일〉 1월호에 있습니다.

1. 조기 은퇴를 꿈꾸며, 부지런히 일하고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여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30대 말이나 40대 초반까지 은퇴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수입의 70~80%가 넘는 액수를 저축하는 등 극단적인 저축을 선택하죠. 1990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이 사람들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❶ 프리터족
❷ 파이어족
❸ 니트족
❹ 딩크족

힌트
8페이지를 살펴보세요.

2.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중 사회문화환경 분야 1위를 기록한 제도입니다. 국민의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준 핵심 제도이기도 한데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❶ 최저임금제
❷ 포괄임금제
❸ 주52시간 근무제
❹ 탄력적 근로시간제

힌트
24~26페이지를 살펴보세요.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의고사 답안, 이렇게 보내주세요!

엽서로 제출 시 엽서에 답안을 기입한 후, 정기구독 신청을 표시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웹진으로 제출 시 기본 '카메라' 앱을 연 후, QR코드가 보이도록 화면을 조정합니다. 스마트폰 상단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한 후, 정답을 입력합니다.

*QR코드가 스캔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설정 > 카메라 > QR코드 스캔 'ON'으로 변경 > 위 방법대로 다시 시작!

12월호 퀴즈 정답 당첨자

박봉학	채희정	김정화	이주형
이순민	나윤정	조향원	
홍용기	박소라	이영기	

* 퀴즈 당첨자 분들껜 1월 중으로 커피 쿠폰을 선물해드립니다.

〈월간 내일〉을 만나는 세 가지 방법

〈월간 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스캔하시면 웹진으로 연결됩니다.

www.labor21.com

1. **인쇄 잡지로 만나기**
엽서를 보내시거나 웹진에 접속해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2. **웹진으로 만나기**
인터넷 검색창에 '월간 내일' 혹은 'www.labor21.com'을 입력하세요.

3.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월간 내일'을 입력하시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세요.

고용노동부